

##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를 단 한 절로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빌려줄 정도의 땅이었으면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었으며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밭을 잘 일구려고 노력하였기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볼품없는 남의 밭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보화가 밭에 감춰진 줄 몰랐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는데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인생의 답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누구나 아는데 과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잘 살기 원하면서 하루를 소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의 터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밭을 일구는 성실함으로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 1.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불평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따르는지 시험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닌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오늘도 보화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 길 같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한날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2.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1: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늦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5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됩니다. 하루를 아는 것은 일생의 과정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림 자체가 가장 귀중한 때도 있습니다.

## 3. 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당시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복음서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자신의 그 허물이 믿음으로만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9~10 |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약함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능부가 최선을 다할 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하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